

# ‘車 앞 유리에 주행정보’ 윈드실드HUD시장에 출사표

HYUNDAI  
MOBIS

선형개발 마치고 양산 준비  
제네시스 GV80에 첫 적용  
내비게이션 연동, 경로 등 안내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운행 시 쉽게 주행 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돕는 첨단 장치인 ‘윈드실드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이 장치는 운전석 앞 유리에 주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장치로,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SUV인 GV80에 첫 적용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시대에 최적화된 AR(증강현실) HUD 기술도 선행 개발을 마치고, 양산 개발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HUD 양산 적용



현대모비스의 윈드실드 HUD 작동 실제 모습

을 통해, 차량 인포테인먼트 4대 핵심 기술로 불리는 ▲HUD(헤드업 디스플레이) ▲Full D-Cluster(풀 디지털 클러스터) ▲SVM(서라운드 뷰 모니터) ▲AVNT(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텔레매틱스) 양산기술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HUD 시장은 2~3개 해외 부품업체들이 독점해왔다. 현대모

비스는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펼쳐, HUD 제품군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이번에 확보한 이 분야 4대 핵심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각 장치마다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어기들을 하

나의 제어기로 합친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현대모비스가 첫 양산한 12인치 윈드실드 HUD는 기존 제품 대비 확장된 화면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주행 경로, 도로 교통표지판 정보, 주행 보조 정보 안내 등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을 활성화하면, 주변에서 운행하는 차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제공을 통해 최근 차량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작동, 스마트폰 활용과 같은 운전자 시야 분산 및 인지능력 저하 요소 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AR(증강현실) HUD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R HUD는 실제 도로 위에 3차원

가상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전방 주행 자동차의 위치나 거리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실시간 주변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차세대 HUD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칼스텐 바이스 현대모비스 IVI 시스템개발센터장(상무)은 “미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단순한 운전 보조, 정보 제공 장치를 넘어 탑승객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는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서 차별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통합 인포테인먼트 플랫폼과 통신·편의·보안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차 기술을 선도하는 ICT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3D 아바타로 구현된 상대방과 가상의 공간에서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美 기업들과 AR 협업추진

## 3D아바타 의사소통 서비스 연내 출시

멀리서도 AR공간서 만나 대화

증강현실(AR)글라스와 5G스마트폰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3D아바타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증강현실 협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페셜과 AR디바이스 전문 제조기업인 엔리얼, 퀄컴과 손잡고 5G를 기반으로 하는 AR 협업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고 27

일 밝혔다.

스페이셜과 엔리얼, 퀄컴 등 제조사 이외에도 KDDI(일본)와 도이치텔레콤(독일) 등 5G 도입을 앞둔 해외 통신사도 글로벌 파트너사로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각 회사가 지닌 기술력과 서비스 등 장점을 결합해 이용자가 멀리서도 AR 공간에서 만나 대화하고, 증강현실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아시아나항공, 취항지 10곳 신규 추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신규 커넥팅 파트너 타이항공 선정

아시아나항공이 두 번째 커넥팅 파트너 선정을 통해 운항 지역을 넓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가 속한 세계 최대 항공사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가 타이스마일항공을 신규 ‘커넥팅 파트너’로 선정하고 방콕에서 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타이항공 본사에서는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타이스마일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의 두 번째 커넥팅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선보인 커넥팅 파트너 모델은 스타얼라이언스의 정식 회원사는 아니지만 스타얼라이언스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타йс마일항공은 현재 9개국 32개 도시로 매주 396편 이상의 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타이스마일항공의 영입을 통해 스타얼라이언스는 기존에 회원사가 운항하지 않던 취항지 10곳을 새로이 추가하게 됐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현대제철, 고성능 강재로 시장위기 정면돌파

올해 경영방침 ‘기업체질 강화’ 판매 목표 27만t ↑, 918만t 설정

현대제철이 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고성능 강재 시장 공략을 통해 위기 돌파에 나선다.

27일 현대제철은 고성능 브랜드 강재 마케팅을 강화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올해 경영방침을 ‘기업체질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로 확정하고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한다. 올해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 판매 목표도 작년보다 27만톤(t) 증가한 총 918만톤으로 잡았다.

◆ 내진·내화 등 복합 성능을 갖춘 고급 건축용 강재 ‘H CORE’

이같은 목표달성의 중심에는 현대제철이 지난 2017년 출시한 고성능 건축용 강재 브랜드 ‘H CORE’가 있다. 이 제품은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어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지난 2019년 2월에는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고온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내화내진 복합 강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건축용 강재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검증했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내화내진 H형강은 1㎡ 면적당 약 36kg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으며, 강재온도가 600℃까지 상승해도 상온 대비 67% 이상의 항복 강도를 유지해 건물이 붕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 내화내진 복합강재를 사용할 경우 건물의 안전도 향상은 물론, 내화피복제 사용량 절감 및 공정 감소를 통해 공기 단축과 건축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이 작년 내수시



현대제철이 ‘2019상하이모터쇼’에서 자동차 전문 브랜드 ‘H-SOLUTION’ 부스를 통해 고장력 강·핫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제철

장에 공급한 H형강 제품 150만톤 중 40만톤 이상이 H CORE였고, H CORE 철근 제품도 12만톤에 달했다.

◆ 대형 규격 H형강 ‘RH+’ 선보여

현대제철은 지난해 H형강 제품의 규격을 확대한 대형 규격 H형강인 RH+를 론칭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기존 82개의 H형강 제품규격에 55개의 대형 규격 및 39개의 중소형 규격 등 총 94개를 새롭게 추가해 안전성과 강재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규격 확대를 통해 강재 사용량 절감은 물론 이음새 없는 대형 규격 공급으로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RH+를 사용한 VE(Value Engineering)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제철은 RH+ 공급을 통해 수입 H형강에 대한 대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KS의 H형강 규격은 일본의 JIS규격 356종, 미국의 ASTM 규격 283종, 영국의 BS규격 111종 등 해외의 H형강 규격 수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KS에 등재된 적은 수의 H형강 규격으로는 각종 구조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단면치수와 성능에 부응하지 못했

지만 이번 현대제철의 규격 확대로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수입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최근 RH+를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에서 최소 10% 이상의 강재 절감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

◆ 자동차 전문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재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론칭한 자동차 전문 솔루션 브랜드 ‘H-SOLUTION’은 자동차 소재 분야에 대한 현대제철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H-SOLUTION’은 고장력 강·핫스탬핑 등 자동차용 소재 단위에서부터 성능과 원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성·성형·용접·방청·도장·부품화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브랜드다.

현대제철은 ‘H-SOLUTION’이 주목을 받은 자동차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신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00억 원을 투자해 냉연설비를 최신화 하는 한편, 내년 1월 양산을 목표로 체코 오스트라바(市)에 핫스탬핑 공장을 신설하는 등 유럽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